



“야! 방학이다” 광주지역 초등학교들이 20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 월산초등학교(교장 김성희)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친 뒤 교정을 나서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캄보디아 캄프스푸 ‘광주진료소’ 광주 청소년 체험학습 장소 인기

올해로 개원 1주년을 맞는 캄보디아 캄프스푸 ‘광주진료소’가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화보 18면>

지난해 12월 장성지역 중학생 9명이 캄보디아 캄프스푸 봉사활동에 참여한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는 광주지역 고등학교생 9명이 참여했다. 올해 교내 봉사 동아리를 만든 수피아여고 ‘Youth Hope Tree’(청소년희망나무) 회원 6명과 송원고 회원 3명이 참여해 2박3일 간의 힘든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내과 내시경 진료 보조 및 안과 시력 검사 등 의료 지원 뿐만 아니라 마을 이동 진료 지원, 인근 고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풍선 아트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송원고 박가령(18)양은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서양(18)양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원고 박가령(18)양은 “좋은 기회에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은 현장 공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광주진료소가 기성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까지 공동체 정신과 나눔·연대의 정신을 공감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캄프스푸(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

## 현대차, 창조경제 ‘통큰 투자’는 언제...

### 광주혁신센터 출범 6개월 ‘그랜드 플랜’ 가시화 안 돼 ‘수소차 메카’ 육성·중기 기술개발 지원도 기대 못미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6개월(27일)을 앞두고 있지만 센터의 동반자인 현대차그룹의 통큰 투자를 기반으로 한 ‘그랜드 플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스케일에 맞는 과감한 투자는 커녕 영세한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탓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광주창조센터가 창업교육이나 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 등 기존 행정 분야에서도 가능한 소규모 업무만 진행하면서 광주지역 내 중소기업인들

사이언스 자동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광주창조센터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광주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갖고 광주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메카로 육성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광주창조센터는 타 지역 센터와 달리 관련 시설 신축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빠진데다 수소차 사업 연구·기술개발·창업 등을 육성한다는 등의

원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개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의 열악한 자동차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랜드 플랜’을 기대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차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인데도, 이른바 돈 되는 부품산업기반은 극히 열악하다. 광주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부가가치 생산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국의 1.4%에 불과하며 자동차부품 종사자수 비중도 겨우 3.1%로 전국 1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업체수는 208개로 전국 10위 수준이며, 특히 종사자수

50인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가 181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영세성 때문에 광중업체들은 자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겨우 차체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만 형성돼 있어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관련 신기술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 6개월간 현대차그룹의 광주 창조센터가 내놓은 실적은 미미하다. 수소차와 관련한 광주시와 ‘수소 융합스테이션(북합충전소)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게 사실상 전부다. 벤처 및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운영 시스템 지원, 광주 대인시장 내 시범 점포 2곳 개소 등이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의 통큰 투자를 기대했던 광주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도시 광주를 지원한다고 해 한껏 기대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기술 실용화 지원, 수도권 업체와의 기술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새정치, ‘사무총장직 폐지’ 1차 혁신안 의결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중앙위 의결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 전반에 대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

에 따라 공천과 직결된 혁신안이 상정되는 9월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날 통과된 혁신안은 사무총장직 폐지를 비롯,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과 관련된 당헌 개

정안이다. 혁신안은 중앙위에서 기립 투표에 붙여진 결과, 재적 555명 가운데 참석 395명, 찬성 30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혁신안이 무난하게 통과된 것은, 최고위원회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교체지수 도입, 정체성 확립 등 민감한 사항들이 모두 추후 당무위 및 중앙위 의결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수피아여고 최희진양을 비롯한 학생들이 광주진료소 인근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그린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캄프스푸(캄보디아)=김진수기자 jeans@



친일파 윤용렬 선정비  
광주공원에 있다 ▶7면  
최윤정 ‘156전 157기’  
마리톤 클래식 우승 ▶20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준B하라  
더 멋진 인생을  
The B-Class

